18일 개막 PGA투어 'THE CJ CUP' 100배 즐기기

경기관람만? K-푸드 '비비고' 잔치까지 풍성

스크린 골프 체험존·스타 사인존 볼거리
비비고 부스에선 비비콘 등 한식 대잔치
주차장 위치·물품반입 금지 등 숙지해야

지난해 THE CJ CUP 비비고존(왼쪽)에서 갤러리들이 음식을 먹고 있고 대회장에서는 트로피를 구경하고 있다. 사진제공 | CJ

제주에 위치한 클럽나인브릿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PGA투어 정규 대회인 'THE CJ CUP @ NINE BRIDGES(이하 THE CJ CUP)'가 16일 연습 라운드를 시작으로 골프 팬들을 맞이한다. 지난해에는 3만 5000여 명의 구름 갤러리가 대회장을 찾았고, 저스틴 토마스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8일 개막하는 CJ CUP은 지난해보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져 골프 팬들의 기대를 끌어 올리고 있다.

●시그니쳐 푸드 '비비콘'과 증강현실 기반 앱 '테이스티 로드'

작년 THE CJ CUP에서는 코스와 갤러리 플라자에서 전복김밥, 만두강정, 한입 떡갈비 꼬치 등이 판매되어 경기장을 찾은 갤러리들의 허기를 달래 주었다. 올해는 THE CJ CUP의 시그니쳐 푸드인 '비비콘'이 처음으로 소개된다. 비비콘은 김으로 콘을 만들고 그 안에 불고기 볶음밥과 고추장 소스를 얹어 한 손으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

비비콘은 이미 지난 8월 '2018 KCON LA' 현장에서 맛과 편의성, 화제성 측면에서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대회장을 찾을 갤러리들에게도 기억에 남을 CJ만의 K-스타일 푸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갤러리들이 비비고 부스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증강현실(AR)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테이스티로드'를 개발했다. 앱을 통해 경기장 내 비비고 주요 위치와 메뉴, 경기 일정, 날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즐길거리가 많은 THE CJ CUP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보는 것 외에도 THE CJ CUP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다. 갤러리플라자에서는 직지심체요절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THE CJ CUP의 트로피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된다.

대회 후원사들의 전시 공간인 THE EXPO에서는 스크린 골프 체험, 페리에 신제품 시음, 럭키 드로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 체험존에서는 나인브릿지 코스 18번 홀의 그린 앞 100m 지점에서 핀에 공을 붙이는 니어핀 이벤트가 진행되어 실제 코스에서 플레이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갤러리 플라자에는 비비고와 칭타오 맥주를 함께 할 수 있는 판매 부스가 설치돼 시원한 맥주를 즐기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코스의 클럽하우스 인근에는 PGA 선수들에게 직접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사인존이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전용 사인존을 설치하여 선수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대회장을 찾을 때 기억해야 할 것들

이번 대회는 갤러리들의 개인 차량과 택시의 대회장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갤러리들은 대회장에서 약 7km 떨어진 새별오름에 마련된 갤러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0분 간격으로 다니는 셔틀버스로 대회장을 방문하게 된다. 제주 공항과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새별오름까지 셔틀 버스도 운행한다. 선수들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물품의 반입과 행동 역시 철저히 금지된다. 갤러리 입장 시 반입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이 철저히 진행되니 사전에 반입 금지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큰 배낭이나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셀카봉 등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는 것이 갤러리의 매너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대회장 및 주변에 운영 인력이 상주해 갤러리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갤러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허보람 스포츠동아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한국의 올드 트래포드 '스틸야드'를 아시나요?

한국 최초로 세운 '축구 전용구장'
포스코 박태준 회장 1992년 설립

한국 최초의 축구 전용구장 '스틸야드'의 개장 기념 경기와 당시 신문기사. 사진출처 | 포항 스틸러스 공식 홈페이지

축구경기장은 축구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경기장에는 역사와 기억, 전통이 머문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아직도 1966년 월드컵 우승의 환호성이 들리고, 미네이랑의 경기장은 아직도 2014년의 비극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국에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기장이 존재한다. 바로 포항 스틸러스의 홈 '스틸야드'다. 스틸야드는 한국 최초의 축구 전용구장이다. 1992년 11월 스틸야드가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의 모든 홈구장은 종합운동장이었다. 그라운드와 관중석 사이에는 늘 육상 트랙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스틸야드는 관전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았다. 꼭대기에서도 30m 내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고 어디서든 선수들이 공을 차고 몸을 부딪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경기의 역동성과 생생함을 관중들이 더욱 크게 느끼게 된 것이다.

반대로 선수들도 관중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포항제철은 홈 팬들의 응원 덕에 더욱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원정팀들은 압도적인 관중들의 압박감에 당황했다.

국내 최초 전용구장의 탄생은 고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축구사랑 덕분이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실업축구팀을 만들었고, 프로팀으로 전환할 때도 선수 영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그는 전용구장 건립이 프로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첫 단계라 확신했다. 한국에 전용구장이 있어야 축구가 발전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팀이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틸야드의 특수성이 많이 퇴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스틸야드만의 역사가 남아있다. 1995년 일화와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골을 넣고 철조망에 매달려 포효하던 황선홍은 2012년 포항의 감독으로 돌아와 FA컵 우승을 확정짓고 다시 철조망에 매달리며 그때의 감동을 재현했다. 스틸야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서빈 대학생 명예기자 smallbeen@naver.com

울산현대의 해리 케인 꿈꾸는 고교축구 최고 골게터 박정인

박정인

올 한해, 고교 축구를 떠들썩하게 만든 선수가 있다. 전반기에만 무려 3개의 득점왕을 수상한 울산현대고 박정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막강한 득점력으로 2018 K리그 주니어B 전기리그(11골), 2018 대교눈높이 전반기 전국 고등리그 왕중왕전(9골), 2018 K리그 U18 챔피언십(7골)에서 모두 득점왕을 차지했다. 특히 왕중왕전 결승전에서는 전반 35분 교체로 들어가 2분 만에 동점골을 넣었고, 결승골에도 관여하며 맹활약했다. 이 경기는 '박정인의 원맨쇼'라고 불릴 만했다.

고교축구 최고의 골게터인 박정인을 울산현대 클럽하우스에서 만났다.

전반기에만 무려 3개의 득점왕을 수상한 박정인은 "3개의 득점왕을 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막강한 득점력의 비결은 개인 운동에 있었다. 울산현대고는 새벽과 밤에 단체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다. 박정인은 매일 적어도 한 시간 동안 슈팅 훈련이나 득점 훈련을 한다.

박정인은 고등학교 재학 동안 2학년 2개, 3학년 3개, 총 5개의 득점왕을 목표로 삼았다. 2학년 때 득점왕 1개를 포함해 4개의 득점왕 타이틀을 들어올린 그는 "전국체전 득점왕에 올라 고등학교 진학 당시의 목표를 이루겠다. 전국체전 득점왕 또한 내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끝으로 그는 "울산현대고 '박정인'하면 항상 겸손하고 골 잘 넣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며 "프로선수가 돼 울산현대의 해리 케인이 되겠다"고 당당히 포부를 밝혔다.

이경희 대학생 명예기자 footballhee@naver.com